

01 교회소식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공백이 메워지고 참 만족을 얻은 성도들.

02 생명의 말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서서는 여리고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함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마음의 정결함에 있음을 알려 주셨다.

03 간증

“한국에 와서 행복을 찾았어요”

우리 교회 해외교구 베트남어 구역 성도들이 전하는 성령의 역사와 주 안에서 치료받아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삶.

04 인터뷰

감추어진 사랑을 맛보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참 신앙의 눈을 떠가는 김미경 박사의 축복받은 간증.

만민뉴스

제676호 2015년 3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죠”

모든 이론과 지식을 파하는 권능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모든 이론과 지식을 깨뜨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만나 주신다(사진은 왼쪽부터 1 황준하 박사, 2 이관규 박사, 3 채운석 박사, 4 박용욱 교수).

이관규 박사는 9년 전,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가 걱정돼 따라 나왔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주의 종으로 사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사진 2).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일 대예배시 '천국'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다.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설교를 꼼꼼히 따져가며 들던 그는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던 중 그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해 주변을 두른 원형 무지개였다. “제 인생에 그런 무지개는 처음 보았습니다. 만약 기상현상에서 말하는 채운이라면 교회 창립 같은 기념일 등 의미 있는 날들을 골라 공교롭게 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더구나 목격한 사람이 수천 명이니 확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후 부흥성회에 참석해 만성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받고, 결혼 13년 만에 고대하던 잉태의 축복을 받아 아들까지 얻은 그는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하려 할 수 없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것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지금 삶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운데 굳이 알아야 하나? 안 그래도 바쁜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것이 매우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제 사고방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늘 보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혜롭겠더라고요.”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요즘 세대,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려면 이론과 지식의 틀이 깨지는 역사가 따라야 한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현실로 벌어져 직접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될 때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성경이 참임을 소개하는 GCN 방송(www.gcntv.org) '창조와 과학' 프로그램의 과학자문을 맡고 있는 황준하 박사(신경생리학, WCDN 부회장)는 “과학은 불안전하고 현재는 맞았다 해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고 누구도 풀지 못한 답들을 제시해 주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수많은 퀘스천마크가 순식간에 해소되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사진 1).

전 세계 기독교사가 하나 돼 의학을 통해 권능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는 WCDN(세계 기독교사네트워크) 회장 채운석 박사(연세제일의원 원장)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고민이 있었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면 무력감이 느껴졌다(사진 3).

그런데 2000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하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성도들이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 중풍 등 치료와 시력 회복을 간증하는 것을 보며 많이 놀랐고, 기독교사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그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중풍,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볼 때 그분들이 빨리 이 성경의 복음을 듣고 병이 왜 오는지 깨달아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 주곤 합니다.”라고 했다.

울산과학기술대 컴퓨터정보학부 박용욱 교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남울산만민교회에 인도받은 뒤 비로소 제2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사진 4).

십자가의 도, 영혼육, 창세기 강해 등 설교를 통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영적 질문들이 속 시원히 해결됐고, 암·백혈병 등 각종 질병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보았다.

“특히 김은득 권사님 간증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끓는 물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오로지 당회장님 기도만으로 흉터 하나 없이 깨끗이 치료받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는 세상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사는 것이 안타깝다며,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 모든 이론과 지식을 철저히 깨뜨리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육 간에 치유는 물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호수아 3:14~17)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기에 한 마디의 불평이나 의심하는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위로부터 내려오던 강물이 썰리기 시작했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확고해졌고,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려워했습니다(수 4:14).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이 역사를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요단강의 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취해 기념비와 같이 세우게 하셨지요.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수 4:19~24).

2.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1)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이 멈추는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 당장이라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공격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큰 싸움을 앞두고 무기를 정비하라거나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 곧 할례를 명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지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모든 남자를 할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육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통증으로 며칠

간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니 생각을 동원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있으므로 순종해 할례를 받았고,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적군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전쟁 상황에서 굳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육적으로는 사람과의 전쟁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지요.

영계의 전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한 개의 돌맹이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여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여리고성의 싸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마음의 정결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 까닭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할례의 참의미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

육적으로 볼 때 할례는 몸을 베는 것이지만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당시는 성령 시대가 아니므로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을 할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할례를 명하시고 마음의 할례로 받으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불과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므로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때에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했고(수 3:5)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관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수 5:15), 이는 곧 영적으로 성결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약속의 성취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정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 강물의 흐름을 멈추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이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비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합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리고를 향한 길목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달리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요?

1.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무렵은 우기여서 수위가 최고로 높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 물살이 험하면 수백만 명의 백성이 많은 짐을 가지고 강을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면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강물이 썰여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다고 해서 그 흐름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이 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중앙교회를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중국교구와 해외교구가 있다. 그 중에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베트남어 구역'이 부흥하고 있어 이들의 간증 일부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Vietnam

“제 신앙생활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리유 집사 (구역장)



저는 2006년 6월, 한국인 남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잘 몰라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뎠기에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지요.

세 살 된 아들이 남편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차문이 열리는 바람에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나가던 버스가 떨어진 아이 위를 지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아들이 바퀴 사이에서 지킴을 받았고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할렐루야!

이 일은 제 신앙을 180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썼고, 한국어를 잘 몰라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베트남 성도에게 알려 주었지요.

작년 6월부터는 해외교구에서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 때 베트남어 통역은 물론, 때를 좇아 담당 교구장님의 심방에 동행해 통역을 했습니다. 때론 잘 모르는 한국어의 뜻을 꿈속에서 알려 주시는 신기한 체험도 했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열심히 지인들에게 간증하니 베트남어 구역이 부흥해 올해 2월, 교회에서 주시는 우수구역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레티리엔 성도



2012년,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중국어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트남어로는 인터넷 예배 통역이 안 됐지만 배의 선주인 아버지를 도와 일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웠기에 중국어 예배로는 가능했지요.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베트남어로 번역된 신앙서적인 『천국』, 『지옥』,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개이라 이스라엘』,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남편은 틈만 나면 전도를 했고, 저도 함께 일가친척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교회를 이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 인원이 증가하는 축복이 임해 한곳에는 30명, 다른 곳에는 15명이 모였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을 전해 주니 읽는 분마다 큰 감동을 받았지요.

2013년 6월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왔고, 친정 부모님이 저희를 대신해 베트남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루 속히 베트남어로 인터넷 예배 통역이 이뤄져 베트남에서도 많은 분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폐아인 아들이 호전돼 근심이 사라졌어요”

웬티빛장 성도



저는 자폐아 아들로 인해 늘 신경을 쓰며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들이 말도 잘 못하고 화장실에도 혼자 못 가며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리유 구역장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은 뒤 저는 베트남어로 번역된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아들도 호전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역시 아들의 상태는 많이 호전돼 지금은 혼자서도 화장실에 가고 사람들의 말에도 호응하며 대답도 잘합니다. 전에는 정신이 산만해 가만히 있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앉아 있습니다.

제 삶에 늘 따라다니던 근심이 사라져 얼마나 기쁘지요. 할렐루야!

“질병도 치료받고 신앙도 새로워졌어요”

황티쉬엔 성도



저는 베트남에서 교회에 다닌다고는 했지만 예배 중에 졸음으로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작년 4월, 한국에 거주하는 딸을 보러 왔다가 10개월간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8월에 있었던 '만민 하계수련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응답받고 치료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목도했지요.

뿐만 아니라 저도 27년 된 비염을 치료받고, 남편은 끊기 어려웠던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베트남으로 돌아온 저는 이곳에도 만민 지교회가 세워지길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Power of God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어요”

최화평 형제(27)는 양측 폐에 결핵균에 의한 폐렴으로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었지만, 이재록 목사의 사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받고 의식이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폐가 소생되고 회복돼 신속히 퇴원하는 등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회복 속도를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도받기 전 폐 양측에 결핵균에 의한 폐렴 소견이 심해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기도받은 후 폐 양측에 보였던 결핵균에 의한 폐염 소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한 최화평 형제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3월8일~3월14일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십자가의 도 9-13
- 창세기 강해 13-17
- 믿음의 분량 16-20
- 요한일서 강해 19-23
- 요한계시록 강해 8-14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0-1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 (이슈진목사)
- 정직한 자 2 (이미영목사)
- 나의 수고는? (이미경목사)
- 기도 5 (이희선목사)
- 옴기 강해 11 (신동초목사)
- 열 재앙 13 (정구영목사)
- 새로운 피조물 (주현권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7
- English 4
- 뷰티풀 라이프 2
- 옛날 옛적에 13
- 창조와 과학 6
- 흥겨운 소리 9
- 만민 지킴이 4
- 모두 드려요 24
- 내 마음의 찬양 7
- 즐거움 요리 26
- 플로리스트 7

해외교회 및 교육

- 회상 1
- 인도 연합대성회 1
- 2014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1-2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언어는 사랑이었어요”

대학 교수이자 한국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미술사학자인 우리 교회 김미경 박사가 최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현대미술관인 뉴욕근대미술관 모마(MOMA)에 논문이 웹 출판되는 축복을 받았다. 요즘은 연구 외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김미경 박사를 만민뉴스에서 만났다.



김미경 박사 (2대대 19교구)

2015년 한국인 학자로는 최초 세계 최대의 현대 미술관인 뉴욕근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에 논문 웹 출판

제목: Expressions without Freedom: Korean Experimental Art in the 1960s and 1970s
(자유 없는 표현: 1960~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

2014년 하종현 미술상 비평상 수상
UC Berkeley, CA 교환교수
현재 강남대학교 교수(1989~)
한국예술연구소KARI 대표(2006~)

고 질투하고 당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런 신앙의 태도가 어디서 오는 거지?’ 궁금해지면서 ‘영혼육’, ‘사랑장’,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육기 강해’ 등 당회장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모래밭에 산재해 있는 보화들을 찾아 쫓아 쫓아 또 다른 거대한 총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찾아 쫓고 있습니다.

Q. 뉴욕근대미술관 모마(MOMA) 웹사이트에 한국인 최초로 논문이 올라가셨죠?

물질 연단을 받을 무렵, 제가 ‘하종현 미술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우리나라의 굵직한 작가와 비평가가 받는 상인데 거기서 비평가상을 받았지요. 그것이 일간지에 사진과 함께 보도됐고, 황지혜 자매가 “예전에 안수기도받으신 교수님이 이번에 상을 받으셨어요.”라고 스크랩을 해서 당회장님께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당회장님께서 “축하할 일이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 2월 하종현 미술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저는 홍콩의 대안공간 ‘패러사이트’에서 한국, 대만, 일본의 1960년대 문화예술에 관한 기획 전시에 참여하고, 홍콩의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라는 연구기관에서 영어 논문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제 박사 논문 자료로 전시 자료와 담론을 제공해 주고 특강 형식으로 세미나 토론을 하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다음 날 ‘모마’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홍콩에서의 소식을 들었는데 전문가 특강을 해 줄 수 있냐고요. 2000년에 발표한 제 논문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 현대미술에 관한 연구였어요. 이것이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작년 4월, 모마에 가서 디렉터와 큐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토론했는데 그 뒤 제 논문이 6개월간의 편집과정을 거쳐 올해 2월에 웹 출판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제 논문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싶었는데, 당회장님께서 사진 위에 안수기도 해 주신 후 이런 축복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Q.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끄셨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져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이미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서 저를 진정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결국 이 계단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저는 하루 평균 15시간씩 공부하며 연구를 벗 삼아서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회장님 말씀이 연구 주제예요. 계속 메모해 가면서 듣는데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전혀 알 수 없습디다.

이제까지는 학문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높아지는 지식을 폐하고 그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제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시시 때때로 알려 주시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저 순종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Q.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인도받으셨는지요?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들던 황지혜 자매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 주었습니다. 거의 두 주에 한 권씩 당회장님의 저서를 갖다 주어서 호기심으로 10권 정도 읽고 창세기 강해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도 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장로교, 미국에서는 침례교에 다녀서 처음에는 설교 내용들이 낯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고 당회장님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해서 2012년 겨울에 딸과 함께 기도받으러 온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2년 뒤 다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순수하게 좋아서 시작한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자 욕심이 생겨 문화를 중심으로 워크숍과 기획 전시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 초빙교수로 최영걸 교수님이 오셨는데 함께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님 얘기를 많이 한 뒤 제 마음이 다시 만민중앙교회로 향했고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받기 위해 찾았습니다.

Q.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어떤 기도를 받으셨나요?

2014년 6월, 당회장님께 물질 문제로 기도받으러 갔는데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영의 세계로 속히 들어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나 원래 영인데.’ 하는 교만하고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나 교리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장로교단에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가르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 그렇다면 나 아직 영이 아니구나. 일깨워 주시는데 찾아보자.’ 했지요.

기도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물질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것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셨어요. 금식기도 마지막 날, 100일째 되는 날 등 뭔가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걸 느낄 때 퍼즐처럼 정확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몇 배로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Q.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응답받는 과정에서 저녁 9시에 시작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평생 새벽기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고 밤 11시면 자야 하는데 낮밤이 뒤바뀌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즐기고 다녔지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7개월쯤 되니까 졸음이 없어지고 이제는 밤에 잠을 조금 자도 충만하게 바뀌었죠.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은 시기 질투가 없구나.’ 했어요. 원래 교회는 시기 질투가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시기하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광복안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